

스물다섯 번째 날_3월 17일 (수요일)

문들아, 열려라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13 현대인의 성경>

사진 찍어주세요

2015년 8월 15일, 판문점 북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북의 표현으로 ‘조국해방 70년 주년’ 행사가 막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지럽고 목소리가 뒤 엉켜 시끄러운데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당돌한(?) 요청에 거의 반사적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 이 사진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벌써 6년 가까이 지났으니 이들의 삶도 많이 변했겠지요?

어서 속히 북과의 통신, 서신 연락, 북에 대한 자유로운 여행의 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북을 압박하기 위해 걸어잡근 제제의 문들도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전해주면서 그해 판문점의 8월의 뜨거웠던 햇볕도, 살아왔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온갖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여섯 번째 날_3월 18일 (목요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소. <아가 2: 10b -12 현대인의 성경>

봄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눈발에서 옵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옵트리라.

옵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주님,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통일의 봄이 옵트고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일곱 번째 날_3월 19일 (금요일)

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아래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8:16 현대인의 성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희망의 등대가 되도록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용-일’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모를 때 부터 온 국민이 이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은 그저 우리의 ‘소원’일 뿐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통일은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은 저 멀리 있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박한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과 체제, 제도,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지붕을 같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방을 따로 쓰되 지붕은 같이 사용하면서 비를 피하다 보면 협조를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영역과 자기만의 영역의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영역이 대부분이다가 차츰 공동의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 (박한식, 강국진) 본문 292쪽에서)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무지와 편견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무력함이나 패배감도 한반도 땅에서 힘을 잃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운 빛을 이곳에 비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여덟번째 날_3월 20일 (토요일)

식구들의 웃는 얼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분노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27:9 현대인의 성경>

김치찌개 평화론

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 있다
실한 비계 한 점 아들의 손가락에 올려 주며
야근 준비는 다 되었니 어머니가 묻고
아버지가 고춧잎을 담은 딸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따뜻하고 폭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
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
이 소박한 한국의 저녁 시간이 우리는 좋다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덩석 물이를 당한 이웃의 신음이 없다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염병할, 시래기 한 가닥만 못한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다
식탁 위에 시든 김치 고추무를 동치미 대접 하나
식구들은 눈과 가슴으로 오래 이야기하고
그러한 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유대 사내의 웃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끝내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과 겹쳐졌다

주님,
위로하시고 어루 만지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아홉번째 날_3월 22일 (월요일)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같은 방향으로!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13-15 현대인의 성경>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약 20여년 전, 아이오와의 에임스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복의 연구원들이 방문했습니다. 한인들이 그들을 초대하여 인사도 나누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서먹함이 사라지자 복의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보시라요. 우리 머리에 뿔이 있습니까?”

‘북한’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되는 곳, 가난과 굶주림이 넘쳐나는 곳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공포스터에는 북한 사람들을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들로 그렸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루이제 린저는 분단된 한반도에 유난히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복을 방문하고 ‘또 하나의 조국: 루이제 린저의 북한 방문기’가 출판되었고 복에 대한 메마른 호기심을 적셔주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이어서 소설가 황석영이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펴냈습니다. 북한을 한번 다녀왔다는 ‘죄목’으로 그는 4년간을 해외에서 떠돌다가 귀국해서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를 ‘분단시대의 통일 문학 작가’로 알아주었습니다. 그의 방문기의 제목처럼, ‘북한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람 사는 북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글을 쓰는,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였던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들도 우리 처럼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늦은 오후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복의 주민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일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면, 남은 왼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하고, 복은 오른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요.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통일을 향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통일을 향해 꾸준히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